

장년층 남성의 고용과 소득

금재호*

I. 머리말

한국의 장년층 문제는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와 맥을 같이한다. 베이비부머가 직장을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장년층 고용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훨씬 어렵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에 비해 30~40% 더 많지만 한국은 무려 62.1%나 더 많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장년층의 취업난은 단지 생계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장년층의 건강과 가족 사이의 갈등도 중요한 문제이다. 자녀들의 학비나 결혼비용을 부모가 책임지는 우리 사회에서 은퇴 후 대책이 막막한 장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또한 퇴직 후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심하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장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얼마 전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 상승과 인사적체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사협력을 통해 임금 및 인사제도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장년층의 대부분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낮추어 임금 등 장년층의 일자리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keumjaeho325@koreatech.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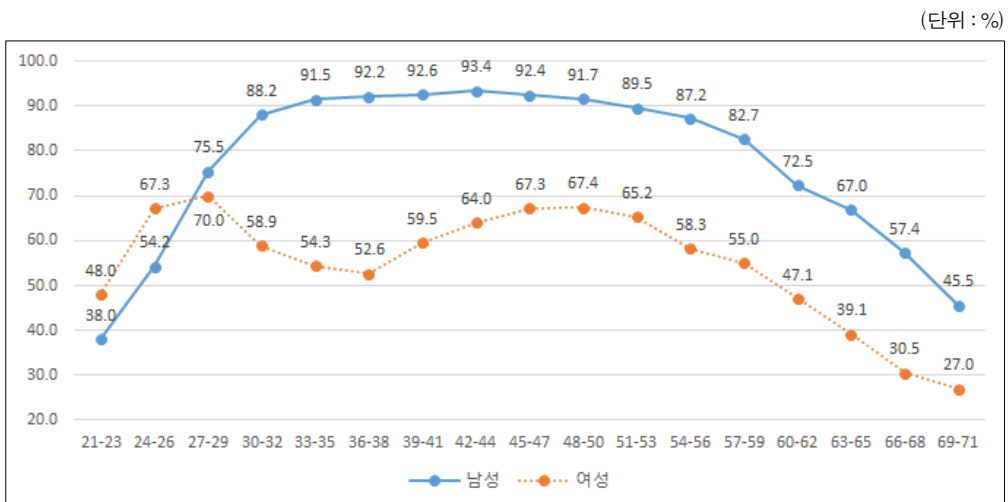
것이 장년층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글에서는 5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상황과 취업욕구, 그리고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함으로써 장년층의 실상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문제는 장년층의 규모가 큰 만큼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도 다양하다는 점이다. 장년층 내에서도 60세 이하는 생애의 주된 직장에서 최근에 퇴직을 하였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반면, 60세를 넘어선 장년층은 이미 대부분 생애의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제2,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림 1]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고용률은 남녀 모두 54~56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낮아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56~60세 남성의 고용률은 2014년 상반기 현재 82.5%이나 이들보다 5세가 많은 61~65세 남성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68.7%로 낮아진다.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장년층이 많다. 여성도 비슷하다. 2014년 상반기의 경우 56~60세 여성의 고용률은 54.4%이지만 5세가 많은 61~65세 여성은 그 값이 41.6%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60세 이후 노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비경제활동 장년층의 상당수는 빈곤이라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 설사 일자리가 있어도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제II장에서는 56~60세와 61~65세 두 집단의 장년층 남성에 대해 코호트(cohort)의 관점에서 고용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을 제외한 남성만 분석하는 것은 아직도 대부분 남성이 가구 생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 근로형태, 직장의 규모, 근속기간, 임금수준 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림 1] 성별·연령별 고용률의 추이 : 2014년 상반기



제Ⅲ장에서는 장년층의 구직활동에 대해 2014년 5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56~60세와 61~65세 두 집단의 장년층 남성에게 대해 구직 및 취업경험, 구직방법, 미래의 근로에 대한 희망, 일자리 선택의 기준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56~60세와 61~65세 두 장년층 남성 집단의 소득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추측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60세를 전후로 장년층의 경제활동과 소득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어, 장년층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오류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향후 장년층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장년층의 비중이 점점 늘어갈 전망이다. 이에 장년층 진입 이전 시기에 고용유지 및 창출, 직업능력개발, 사회안전망 완비와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50대 후반에 들어선 뒤에야 노후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

Ⅱ. 장년층의 경제활동

1. 고용률의 추이

2014년 현재 56~60세인 장년들이 과거에도 장년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에 이들은 40~44세의 젊은이들이었다. 이때 남성의 89.5%와 여성의 60.6%가 취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61~65세 장년들도 마찬가지이다. 16년 전인 1998년 이들은 45~49세로 73.7%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표 1>은 56~60세와 61~65세의 두 집단에 대해 이들의 고용률이 1998년부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성별, 학력별로 보여준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선 56~60세의 경우 연령상승에 따른 고용률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61~65세의 경우에는 연령상승에 따른 고용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1998년 이후의 전 기간에 걸쳐 56~60세의 고용률이 61~65세의 고용률보다 높다. 이는 56~60세가 비교대상에 비해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 높았거나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남성의 경우 4년 대졸 이상 고학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용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넷째, 56~60세 여성의 고용률 변화 규모가 61~65세 여성의 고용률 변화 규모보다 작아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높아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1> 2014년 56~65세인 장년층의 고용률 추이

(단위 : %)

		56~60세(2014년)					61~65세(2014년)				
		1998년 (40~ 44세)	2003년 (45~ 49세)	2008년 (50~ 54세)	2013년 (55~ 59세)	2014년 (56~ 60세)	1998년 (45~ 49세)	2003년 (50~ 54세)	2008년 (55~ 59세)	2013년 (60~ 64세)	2014년 (61~ 65세)
전 체		75.3	75.7	74.0	69.2	68.1	73.7	71.3	65.9	57.2	54.8
성별	남성	89.5	90.8	88.2	83.4	82.5	87.8	87.7	80.1	70.7	68.7
	여성	60.6	60.3	59.5	55.3	54.4	59.1	54.7	51.9	44.5	41.6
남성	초졸 이하	83.3	80.8	81.7	75.2	77.5	84.9	83.2	74.3	68.8	66.7
	중졸	85.5	90.0	85.1	84.2	79.3	85.8	88.0	82.3	75.7	74.5
	고졸	90.4	91.5	89.0	85.1	85.2	88.1	88.2	80.5	71.2	70.7
	전문대졸	87.4	91.8	91.9	87.3	86.8	86.2	85.1	85.2	75.7	69.4
	대졸 이상	93.8	94.5	92.3	83.9	82.3	92.4	91.4	82.3	62.8	57.5
여성	초졸 이하	69.9	66.8	66.3	60.5	59.9	66.9	61.9	58.9	48.6	46.2
	중졸	67.8	63.8	61.7	60.5	59.5	59.0	55.3	50.4	46.4	41.1
	고졸	53.2	57.2	55.5	48.9	48.1	52.8	46.5	43.6	36.6	36.2
	전문대졸	62.1	42.8	60.7	47.7	46.8	51.5	48.7	51.7	48.4	40.7
	대졸 이상	50.6	50.2	51.1	49.4	47.6	47.8	46.9	45.4	37.0	3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종사상의 지위

다음으로 종사상의 지위 변화를 코호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으며,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고용률 하락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2014년 56~60세인 남성의 2003년도 실업자 비중은 2.2%로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값은 2008년과 2013년에도 거의 비슷하다. 비록 1998년에 실업자 비중이 5.8%를 기록하였지만, 이는 외환위기의 상황을 반영한 일시적 현상이다.

이처럼 안정적인 실업률과 대비되어 비경제활동인구는 나이가 늘어날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6~60세인 남성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15.0%였으나 16년 전인 1998년에는 그 비중이 4.7%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2003년에 7.1%, 2008년 9.7%, 2013년 14.5% 등으로 늘어났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증가는 당연히 고용률의 하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일자리에서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표 2>를 보면 56~60세 남성과 61~65세 남성 모두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관측연도에 따라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도리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단지, 상용직 임금근로와 고용원 있는 자

〈표 2〉 2014년 56~65세인 남성 장년층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천 명)

56~60세 남성	1998년 (40~44세)	2003년 (45~49세)	2008년 (50~54세)	2013년 (55~59세)	2014년 상반기 (56~60세)
임금근로	51.8	49.6	50.7	48.7	48.1
상용직	37.8	32.4	33.8	32.3	32.4
임시직	7.5	8.8	8.1	8.6	8.7
일용직	6.4	8.4	8.9	7.8	7.0
비임금근로	37.7	41.2	37.5	34.7	34.4
고용원 있는 자영업	13.4	13.9	10.7	8.1	8.1
고용원 없는 자영업	23.8	26.8	26.1	25.9	25.8
무급가족종사자	0.5	0.4	0.7	0.7	0.5
실업자	5.8	2.2	2.1	2.2	2.5
비경제활동인구	4.7	7.1	9.7	14.5	15.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해당 연령층 인구규모	1,840	1,799	1,788	1,717	1,626
61~65세 남성	1998년 (45~49세)	2003년 (50~54세)	2008년 (55~59세)	2013년 (60~64세)	2014년 상반기 (61~65세)
임금근로	46.3	47.2	43.1	35.7	34.2
상용직	32.3	28.5	24.8	18.4	16.7
임시직	6.7	9.1	9.1	10.7	10.7
일용직	7.3	9.6	9.2	6.6	6.7
비임금근로	41.5	40.4	37.0	35.0	34.6
고용원 있는 자영업	12.8	11.5	8.3	5.6	4.9
고용원 없는 자영업	28.1	28.5	27.7	28.6	28.9
무급가족종사자	0.6	0.4	0.9	0.8	0.7
실업자	6.2	2.0	2.2	2.3	3.0
비경제활동인구	6.0	10.3	17.7	27.0	28.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해당 연령층 인구규모	1,325	1,292	1,260	1,178	1,176

주: 1998년의 실업자 비중은 '지난 1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된 값이며, 2003년 이후부터는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자를 정의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영업자의 비중만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고령화의 주된 피해자임을 보여준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

<표 3>은 매년 8월에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결과를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56~60세와 61~65세 연령집단의 각각에 대해 2003년 8월에서 2014년 8월까지의 다섯 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인구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56~60세와 61~65세 남성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규직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속도는 56~60세 연령층보다 61~65세 연령층이 빠르다. 2003년 8월 50~54세 남성의 정규직 비중은 전체 인구의 31.9%였으나 이들이 53~57세가 되는 2006년 8월에는 27.4%, 55~59세인 2008년 8월에는 25.3%, 그리고 61~65세인 2014년 8월에는 전체 연령대 인구의 13.8%만이 정규직 임금근로로 56~60세 계층보다 절대치의 측면에서 정규직 비중이 작다. 이러한 결과는 56~60세 코호트(cohort)가 61~65세 코호트보다 노동시장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2014년 56~65세인 남성 장년층의 근로형태

(단위: %, 천 명)

56~60세 남성	2003년 8월 (45~49세)	2006년 8월 (48~52세)	2008년 8월 (50~54세)	2013년 8월 (55~59세)	2014년 8월 (56~60세)
정규직	35.0	36.6	36.2	29.9	30.5
비정규직	13.6	12.8	14.3	17.7	16.3
한시직	8.9	7.8	7.5	9.7	8.8
시간제	1.1	1.2	1.2	1.9	2.0
비전형	5.5	5.6	7.8	10.3	8.6
전 체(임금근로)	48.6	49.5	50.5	47.7	46.8
해당 연령대 인구규모	1,814	1,807	1,799	1,731	1,623
61~65세 남성	2003년 8월 (50~54세)	2006년 8월 (53~57세)	2008년 8월 (55~59세)	2013년 8월 (60~64세)	2014년 8월 (61~65세)
정규직	31.9	27.4	25.3	17.0	13.8
비정규직	13.8	16.2	17.7	19.2	19.7
한시직	8.4	10.9	9.7	11.6	12.2
시간제	1.2	1.5	1.6	3.2	3.3
비전형	6.3	7.0	10.1	10.8	11.4
전 체(임금근로)	45.7	43.7	43.0	36.2	33.4
해당 연령대 인구규모	1,296	1,293	1,265	1,182	1,170

주: 2003년 8월 데이터가 불안정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안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2006년 8월을 추가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규직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비정규직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간제와 비전형근로의 비중 증대가 주목할 만하다. 2014년 61~65세인 남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젊었던 2003년 8월에 해당 인구의 45.7%가 임금근로자이고 정규직이 31.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2013년 8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6.2%로 낮아졌다. 임금근로자 비중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은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의 모든 근로형태에 걸쳐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같은 임금근로자라고 하여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데, 특히 56~60세의 남성보다 61~65세의 남성에게서 그 경향이 더욱 심하다.

4. 직장의 규모

종사상의 지위나 비정규직의 비중과 유사하게 직장의 규모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수록 직장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에서 2014년 56~60세인 남성의 시간에 따른 직장 규모의 변화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일하는 직장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42~46세였던 2000년과 55~59세였던 2013년을 비교하면 1~4인, 5~9인 및 10~2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은 늘어났지만,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4> 2014년 56~65세인 남성 임금근로자의 직장규모 분포

(단위 : %)

		2000년 (42~46세)	2003년 (45~49세)	2008년 (50~54세)	2013년 (55~59세)	2014년 상반기 (56~60세)
56~60세 (2014년)	1~4인	11.6	11.5	13.0	15.9	16.3
	5~9인	15.6	14.5	15.6	18.5	20.8
	10~29인	18.4	21.5	23.7	23.1	22.6
	30~99인	21.5	20.1	19.7	19.2	19.1
	100~299인	13.8	13.6	12.9	10.3	8.1
	300인 이상	19.2	18.8	15.1	13.1	13.2
		2000년 (47~51세)	2003년 (50~54세)	2008년 (55~59세)	2013년 (60~64세)	2014년 상반기 (61~65세)
61~65세 (2014년)	1~4인	11.8	13.2	16.6	25.1	25.3
	5~9인	15.4	15.5	17.1	20.4	23.8
	10~29인	18.7	21.4	22.6	24.7	23.1
	30~99인	23.4	19.5	23.1	18.4	17.6
	100~299인	12.9	12.9	10.0	7.6	7.3
	300인 이상	17.8	17.5	10.7	4.0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이러한 현상은 2014년 61~65세인 임금근로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56~60세 남성의 경우 2000년 54.5%였던 30인 이상 사업장 근무 비중이 2013년에 42.6%로 낮아졌지만, 61~65세 남성은 그 30인 이상 사업장 근무 비중이 2000년의 54.1%에서 2013년 30.0%로 낮아졌다. 이처럼 직장규모에 있어서도 56~60세 남성보다 61~65세 남성이 더욱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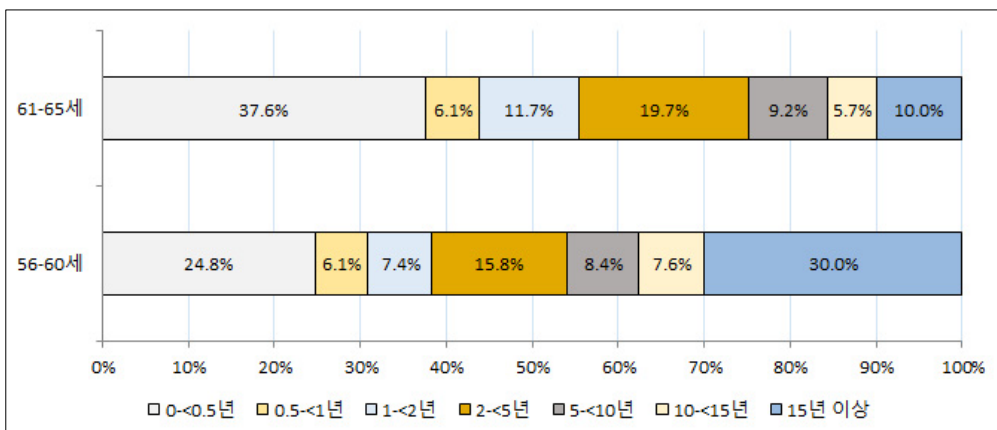
5. 현 직장의 근속기간

현 직장의 근속기간에 있어 같은 장년층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남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 직장의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2014년 현재 56~60세인 취업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0.5년이나 61~65세인 취업자의 평균근속기간은 4.7년에 불과하다. 이는 60세를 전후로 직장을 이동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에 [그림 2]와 같이 근속기간의 분포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56~60세의 남성 임금근로자는 30.0%가 현 직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61~65세는 그 비중이 10.0%에 불과하다. 반대로 현 직장에 취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의 비중은 56~60세 30.9%, 61~65세 43.7%로 61~65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의 직장에 취업한 지 1년이 안 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현재의 일자리가 생애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인가?”를 질문하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이용하여 56~60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를 분석하면 이들의 45.5%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54.5%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56~60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애의 가장 오랜 기간 일한 직장

[그림 2] 2014년 56~65세 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분포 : 2014년 5월



자료 : 통계청(2014. 5), 『경제활동인구조사』.

을 이미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1~65세 남성 임금근로자는 ‘그렇다’는 답변이 23.0%, ‘그렇지 않다’는 답이 77.0%로 대부분이 생애의 가장 오랜 기간 일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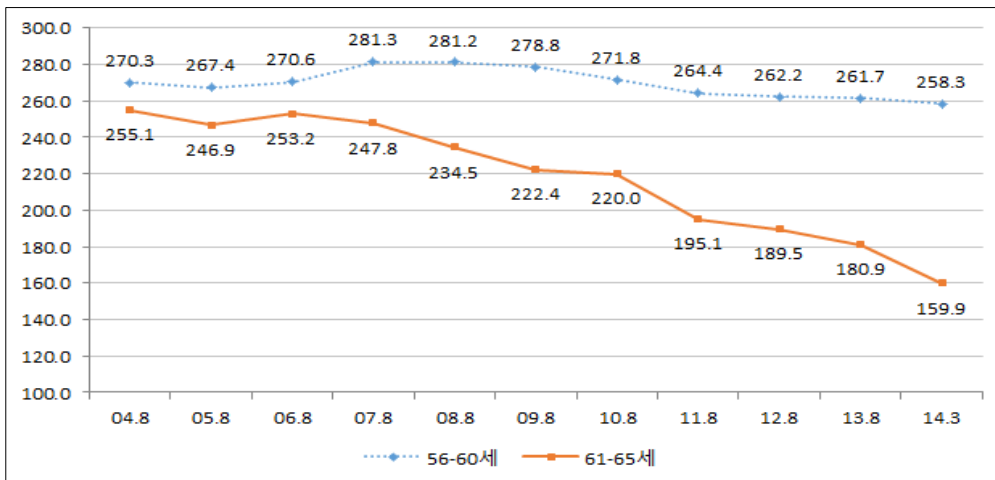
6. 임금의 변화

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004년 8월~2014년 3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2014년 56~60세인 남성 임금근로자의 나이는 2004년 46~50세였을 것이다. 따라서 코호트 분석을 위해 2004년 8월에는 46~50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고, 2005년 8월에는 47~51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다.¹⁾ 계산된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나 있으며, 물가상승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2010년을 10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을 사용하였다.

[그림 3]과 [그림4]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2014년 56~60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

[그림 3] 2014년 56~65세 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실질임금)의 변화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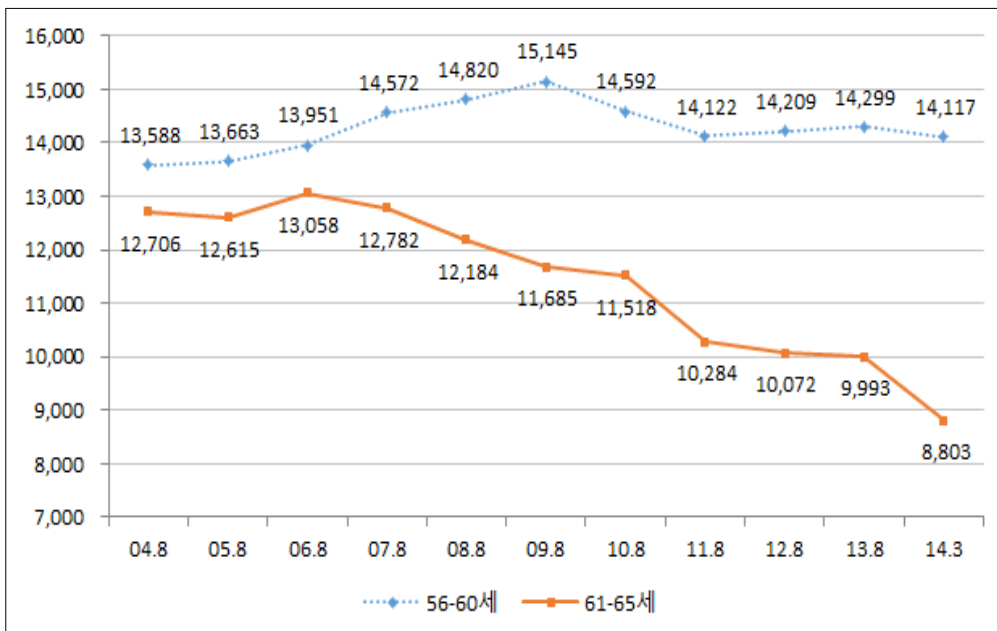
1)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평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월평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은 반면, 61~65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2006년 8월(53~57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첫째, 2014년 현재 56~60세인 남성 임금근로자가 53~57세였던 시점은 2011년이였다. 61~65세 남성 임금근로자는 2006년 8월에서 3년 뒤인 2009년 8월까지 월평균 임금이 30.8만 원, 시간당 임금이 1,373원이 낮아졌지만, 56~60세의 경우에는 2011년 8월에서 2014년 3월 사이에 월평균 임금 6.1만 원, 시간당 임금 5원의 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61~65세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56~60세의 노동시장 성과가 훨씬 높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6~60세의 남성 임금근로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될 것임을 61~65세의 경험은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임금 하락폭이 61~65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2014년 56~65세 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실질임금)의 변화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3월.

Ⅲ. 장년층 남성의 구직활동

1. 구직활동의 경험

여기에서는 2014년 5월에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장년층의 구직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일 자리를 구해 본(구직활동) 경험’을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56~60세 남성의 18.4%와 61~65세 남성의 22.4%가 적어도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6~60세보다 61~65세의 구직활동 참여율이 높은 점이 특이한데, 그만큼 60세를 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취업자의 상당수도 구직활동을 하였다. 56~60세 취업자의 15.8%와 61~65세 취업자의 21.8%가 구직활동을 하였다. 현 일자리가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의 성과인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장년층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 낮고, 고용

〈표 5〉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의 경험

(단위 : %)

연령	경제활동 상태	없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전체
56~60세	취업	84.2	7.9	3.1	4.8	100.0
	임금근로자	75.9	11.7	4.7	7.7	100.0
	상용직	88.6	7.5	1.4	2.6	100.0
	임시직	55.7	23.1	14.3	7.0	100.0
	일용직	44.0	17.1	8.0	31.0	100.0
	비임금근로자	95.9	2.5	0.8	0.7	100.0
	실업	0.0	18.5	13.2	68.3	100.0
	비경제활동	79.4	8.4	4.6	7.6	100.0
	전체	81.6	8.2	3.5	6.6	100.0
61~65세	취업	78.2	11.9	4.1	5.9	100.0
	임금근로자	64.1	17.9	7.2	10.8	100.0
	상용직	84.1	12.2	2.4	1.3	100.0
	임시직	54.4	26.7	11.0	7.9	100.0
	일용직	35.6	16.8	12.1	35.4	100.0
	비임금근로자	92.6	5.7	0.8	0.9	100.0
	실업	0.0	30.5	19.3	50.2	100.0
	비경제활동	83.4	7.4	3.0	6.3	100.0
	전체	77.6	11.1	4.2	7.1	100.0

자료 : 통계청(2014.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

의 질이 떨어짐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구직활동을 한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2. 구직활동의 방법

구직활동의 방법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서로 유사하다. 56~60세와 61~65세 남성 모두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이었다. 그 외에도 ‘민간직업알선기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이 중요한 구직활동의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방법의 비중은 청년층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56~60세의 7.3%와 61~65세의 5.1%만이 이용하고 있어 고용센터의 직업알선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61~65세 남성의 경우 ‘기타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11.4%로 56~60세의 6.3%보다 훨씬 높는데, 이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위해 공공직업알선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현행 고용정책 전달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구직활동 방법

(단위 : %)

연령	구직활동 방법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인구	전체 인구
		임금근로	비임금 근로	취업자 소계			
56~60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0	2.8	3.9	13.4	19.5	7.3
	기타 공공직업알선기관	5.2	2.1	4.9	9.6	10.9	6.3
	민간직업알선기관	13.5	3.5	12.4	8.2	7.6	11.2
	신문, 잡지, 인터넷	10.4	2.4	9.5	13.8	8.9	10.0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	15.8	4.5	14.6	17.7	12.4	14.8
	친구, 친지 소개 부탁	48.0	37.2	46.9	32.5	39.2	44.0
	자영업 준비	1.2	45.1	5.9	3.9	1.5	5.0
	기타	2.0	2.4	2.0	0.0	0.0	1.5
61~65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9	3.3	2.9	17.3	5.6	5.1
	기타 공공직업알선기관	7.7	10.5	8.2	16.3	20.1	11.4
	민간직업알선기관	16.3	1.7	13.8	9.1	10.1	12.6
	신문, 잡지, 인터넷	8.0	4.9	7.5	9.8	15.4	9.3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	18.1	12.0	17.1	12.9	9.2	15.1
	친구, 친지 소개 부탁	46.7	30.9	44.0	33.4	37.9	41.6
	자영업 준비	0.4	35.7	6.3	1.2	1.6	4.8
	기타	0.0	1.1	0.2	0.0	0.0	0.1

자료 : 통계청(2014.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3. 장래의 근로 욕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귀하께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수입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 7>과 [그림 5]처럼 56~60세 장년층 남성의 91.3%와 61~65세 장년층 남성의 83.5%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현재 취업을 하고 있거나 실업상태인 장년층 남성은 90% 이상이 계속 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56~60세 비경제활동인구의 39.8%와 61~65세 비경제활동인구의 51.3%가 ‘일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들도 상당수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7>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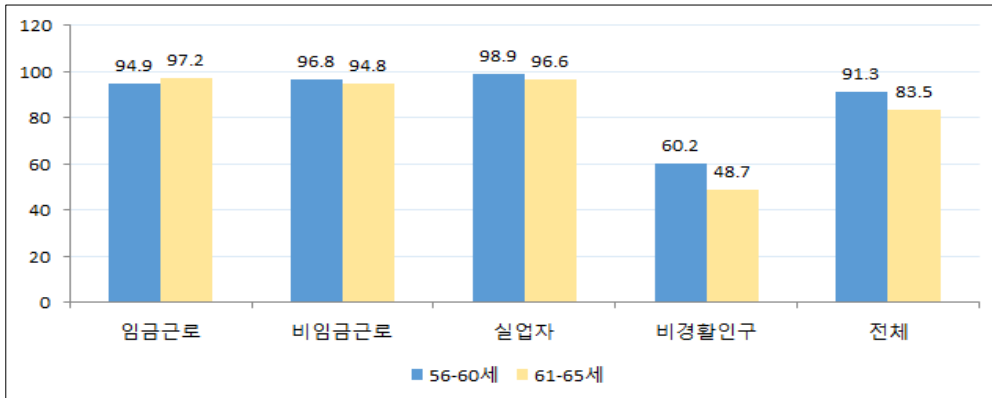
(단위 : %)

연령	일을 원하는 동기(이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인구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취업자 소계			
56~60세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41.0	38.8	40.1	26.8	23.6	37.7
	돈이 필요해서	48.8	54.4	51.1	67.1	33.8	49.3
	사회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해	3.6	2.1	3.0	1.0	0.3	2.6
	건강을 유지하려고	0.4	0.3	0.4	0.0	0.0	0.3
	시간을 보내기 위해	1.2	1.2	1.2	4.0	2.5	1.4
	기타	0.0	0.0	0.0	0.0	0.0	0.0
	일을 원하지 않음	5.1	3.2	4.3	1.1	39.8	8.7
61~65세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41.6	42.4	42.0	37.2	20.0	36.1
	돈이 필요해서	49.6	46.5	48.1	52.3	22.9	41.5
	사회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해	2.9	1.8	2.3	0.0	1.8	2.1
	건강을 유지하려고	1.3	1.1	1.2	2.7	0.9	1.1
	시간을 보내기 위해	1.8	3.1	2.4	4.3	3.1	2.7
	기타	0.0	0.0	0.0	0.0	0.0	0.0
	일을 원하지 않음	2.8	5.2	4.0	3.4	51.3	16.5

자료 : 통계청(2014.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응답과 ‘돈이 필요해서’라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56~60세 남성의 49.3%와 61~65세 남성의 41.5%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하여 이들의 노후준비가 미비함과 동시에 노후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그림 5] 장년층의 특성별 근로 희망 비율(%)



자료 : 통계청(2014.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4. 희망 은퇴연령

다음으로 희망하는 은퇴연령에 대해서는 <표 8>처럼 56~60세 남성은 평균적으로 69~71세에 은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61~65세 남성은 70~73세 사이에 은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희망 은퇴연령은 고용상황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56~60세보다 61~65세 남성의 희망 은퇴연령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61~65세 남성의 일자리 질이 56~60세 남성 일자리의 질보다 낮고, 노후준비가

<표 8> 56~65세 남성의 희망 은퇴 연령

(단위 : 세)

연령	학력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	전체인구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취업자 소계			
56~60세	전체	69.2	70.2	69.6	70.3	69.5	69.6
	초등졸 이하	68.5	71.0	69.6	71.2	69.2	69.6
	중졸	69.3	70.1	69.7	71.2	68.8	69.6
	고졸	69.4	70.2	69.7	70.2	69.7	69.7
	전문대 졸	68.7	69.0	68.8	70.0	69.5	68.9
	4년제 대졸 이상	69.3	69.9	69.5	68.8	70.3	69.5
61~65세	전체	71.0	72.4	71.7	71.6	71.3	71.6
	초등졸 이하	70.8	72.3	71.6	72.5	71.3	71.5
	중졸	71.7	72.2	72.0	72.8	71.1	71.9
	고졸	70.7	72.5	71.6	70.4	71.5	71.6
	전문대 졸	70.9	72.9	71.8	-	69.8	71.5
	4년제 대졸 이상	70.8	73.0	71.5	70.2	71.4	71.4

자료 : 통계청(2014.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상대적으로 더욱 미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계속 일을 하려는 욕구가 증대하기 때문인지는 불명확하다.

조사결과는 적어도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60세 법정정년을 고령화 및 인력부족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이고, 장년들이 기업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확산, 직업능력개발, 장년친화적 작업환경의 마련 등에 투자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일자리의 선택 기준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임금과 계속 근로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6~60세 남성은 임금을 계속 근로가능성보다 더욱 중시하고 있으나, 61~65세 남성은 임금과 계속 근로가능성을 거의 비슷하게 중요시한다. 구체적으로 56~60세 남성의 30.5%가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선정한 반면, 61~65세 남성은 22.5%만이 임금수준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희망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제

〈표 9〉 일자리 선택의 기준

(단위 : %)

연령	일자리의 선택 기준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인구	전체 인구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취업자 소계			
56~60세	임금수준	32.8	27.8	30.7	41.9	24.5	30.5
	일의 양과 시간대	13.4	19.8	16.1	9.4	16.5	16.0
	일의 내용	14.1	13.1	13.7	22.8	19.2	14.4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3.5	1.6	2.7	0.9	2.7	2.7
	사업장 규모	0.6	0.9	0.7	0.0	0.0	0.6
	계속 근로가능성	22.2	21.4	21.9	12.4	17.4	21.3
	과거 취업경험과의 연관성	11.7	14.2	12.7	12.5	17.6	13.1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1.3	1.3	1.3	0.0	0.3	1.2
기타	0.4	0.0	0.2	0.0	1.8	0.4	
61~65세	임금수준	25.2	20.8	23.1	20.5	19.6	22.5
	일의 양과 시간대	17.2	25.8	21.4	21.9	17.5	20.8
	일의 내용	16.0	11.7	13.9	12.0	18.5	14.6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6.5	1.6	4.1	10.9	8.4	5.0
	사업장 규모	0.2	0.4	0.3	0.0	0.3	0.3
	계속 근로가능성	22.4	24.1	23.2	25.0	20.2	22.8
	과거 취업경험과의 연관성	11.7	14.5	13.0	9.8	12.9	12.9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0.6	1.1	0.9	0.0	2.1	1.0
기타	0.2	0.0	0.1	0.0	0.4	0.1	

자료 : 통계청(2014.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도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장기간 근무를 위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의 정비 및 기업 근로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과거 취업경험과의 연관성 등이 중요한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보인다. 특히 61~65세 남성들은 56~60세 남성에 비해 일의 양과 시간대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61~65세 남성의 20.8%가 일자리 선택기준으로 일의 양과 시간대를 고른 반면, 56~60세 남성은 그 비중이 16.0%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제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IV. 장년층 남성가구의 가계소득

1. 가구주 특성과 가구소득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2013년 50~69세인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가구주 특성별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50대에는 전체 가구의 소득보다 높지만 60대에 접어

<표 10> 2013년 50~69세 남성 가구주의 특성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 2013년
(단위: 만 원)

		남성 가구주의 연령				
		전체 15세 이상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모든 가구		415.9	468.5	471.3	352.5	281.9
맞벌이 가구 아님		350.5	400.5	432.2	310.8	258.1
맞벌이 가구		513.1	518.0	518.1	438.4	367.3
가구주 취업		448.9	480.8	487.2	380.1	319.8
가구주 미취업		191.4	147.4	274.4	271.4	225.8
학력별	초졸 이하	213.5	265.2	328.9	296.0	209.0
	중졸	278.0	354.7	361.8	297.7	218.6
	고졸	384.9	445.5	450.0	346.7	304.6
	전문대졸	427.7	474.8	431.7	354.7	369.7
	대졸 이상	539.7	607.9	722.8	496.6	440.1
종사상 지위	상용직	505.2	557.9	574.6	439.1	361.6
	임시직	305.1	341.0	368.0	326.1	331.1
	일용직	316.5	282.1	397.5	337.1	237.1
	고용주	499.5	535.4	597.7	419.5	385.7
	자영자	370.3	415.8	395.5	359.6	276.3

자료: 통계청(2013),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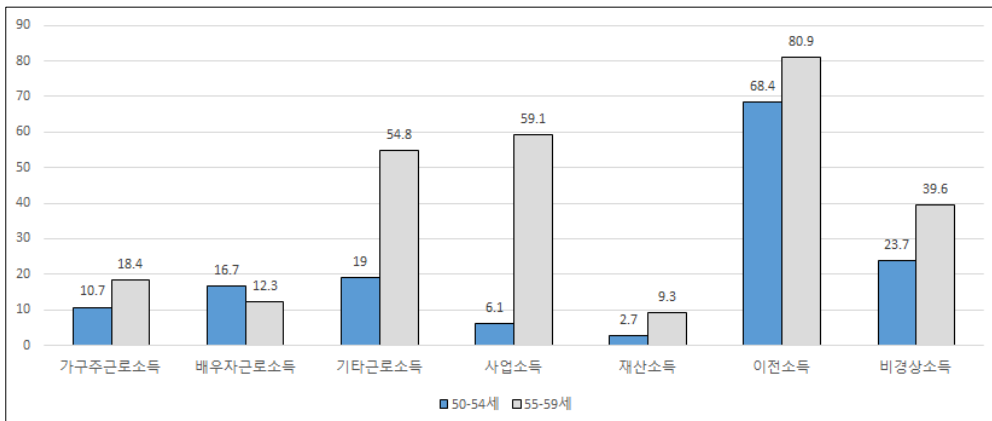
들면서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0~54세 가구와 55~59세 가구의 소득이 거의 같다.

맞벌이 가구의 월 총소득은 전체적으로 맞벌이 아닌 가구의 1.46배에 달한다. 하지만 50대에는 그 비율이 50~54세 1.29, 55~59세 1.20으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소득격차가 작다. 이는 부인의 소득이 총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가구의 총소득은 60대 후반에도 319.8만 원에 달해 가구주의 취업 여부가 가구소득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50~54세 가구의 경우 가구주 취업 가구의 소득이 480.8만 원인 데 비해 미취업가구 소득은 147.4만 원으로 30.7%에 불과하여 가구주의 취업 여부에 따라 빈곤 위험성이 크게 달라진다. 50대 후반부터는 미취업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50대 후반의 경우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가 미취업가구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예상과 같이 모든 연령층에 대해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도 높다. 그러나 초졸 이하 가구와 대졸 이상 가구의 소득비(=대졸 이상 가구 소득/초졸 이하 가구 소득)를 계산하면 전체 가구는 그 비율이 2.53이었지만, 50~54세 2.29, 55~59세 2.20, 60~64세 1.68, 65~69세 2.11 등으로 장년층의 경우 학력에 따른 가구 소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도 가구 총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전체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가구 총소득이 505.2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고용주 가구로 499.5만 원이다. 가구주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 가구 총소득이 매우 낮아 각각 상용직 가구 총소득의 60.4%와 62.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가구의 소득도 고용주 가구의 74.1%에 불과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러한 소득격차는 50대와 60대 가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가구주 미취업가구의 소득 구성 : 50~54세 및 55~59세

(단위 : 만 원)



자료 : 통계청(2013), 「가계동향조사」.

2. 연령과 소득의 구성

연령대에 따라 소득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이전소득은 55~59세에 19.0만 원이지만, 60~64세에는 그 금액이 56.9만 원으로 가구 총소득의 16.1%를 차지한다. 65~69세에는 그 비중이 더 높아져 27.0%에 달하고 있다. 이전소득의 내용을 보면 [그림 7]처럼 공적연금이 가장 많다. 특히 60~64세의 경우 이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이 73.6%를 점유하고

<표 11> 2013년 50~69세 남성 가구주의 소득 구성 : 전국의 모든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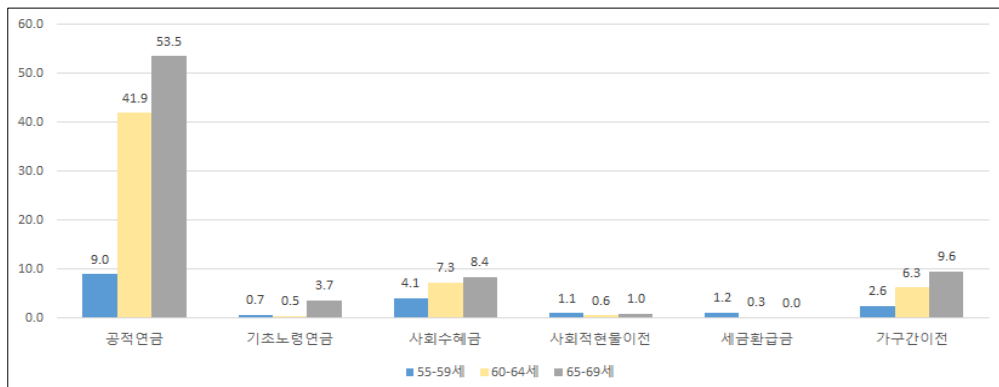
(단위 : 만 원)

	남성 가구주의 연령				
	전체 15세 이상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총소득	415.9	468.5	471.3	352.5	281.9
경상소득	401.9	460.1	453.3	336.3	264.5
근로소득	285.8	309.3	313.4	192.4	116.4
가구주 근로소득	211.5	211.3	187.3	96.5	53.7
배우자 근로소득	48.8	56.7	42.3	30.7	17.9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25.5	41.3	83.8	65.3	44.8
사업소득	88.1	138.2	118.6	83.5	62.9
재산소득	1.9	1.1	2.3	3.4	9.0
이전소득	26.1	11.5	19.0	56.9	76.2
비경상소득	13.9	8.4	18.0	16.2	17.4

주 :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값이며,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사 보조금, 퇴직금, 연금일시금 등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2013), 「가계동향조사」.

[그림 7] 연령대별 이전소득의 구성

(단위 : 만 원)



자료 : 통계청(2013), 「가계동향조사」.

있다. 이외에도 가구간이전과 사회수혜금이 이전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간이전은 60~64세 6.3만 원, 65~69세 9.6만 원으로 이전소득 중 각기 11.1%와 12.6%에 불과하다. 이는 노후생계비를 자녀 또는 친지가 부담하는 관행이 거의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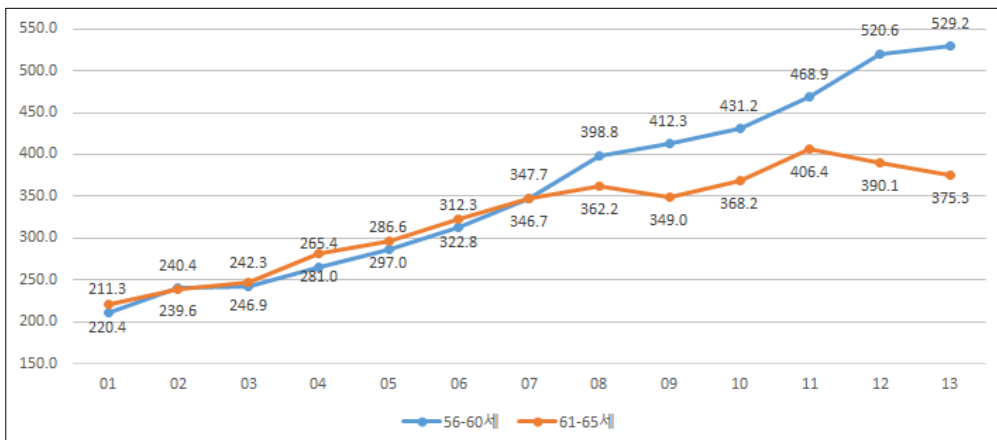
3. 장년층 소득의 변화

장년층 남성가구의 가계소득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청 가계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2013년 56~60세인 남성 임금근로자의 2001년도 나이는 44~48세였다. 코호트 분석을 위해 2001년에는 44~48세 남성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계산하였고, 2002년에는 45~49세 남성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계산하였다. 2013년 56~60세인 남성가구와 61~65세인 남성가구의 가구소득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물가상승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2010년을 10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가구소득을 산정하였다.

[그림 8]에서 2013년 56~60세인 남성가구의 실질 가구소득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2013년에 529.2만 원의 실질 가구소득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남성들이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그 결과 가구의 실질소득이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가정과 배치된다. 한편 2013년 61~65세인 남성가구의 실질소득은 이들이 56~60세였던 2008년 이후 정체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소득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 하락을 겪었을지라도 절대적으로는 56~60세 때의 실질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2013년 56~60세 및 61~65세인 남성 가구의 실질소득 변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013년 61~65세인 남성가구의 경험은 56~60세 남성가구에게도 적용된다면, 56~60세 가구의 실질소득은 향후 5년 동안은 2013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0대 남성가구의 소득과 56~60세 남성가구의 소득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감안할 때, 50대 후반 남성가구는 60대에 들어 실질소득의 상대적 하락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겠지만 절대빈곤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적어도 현재 50대 후반의 2인 이상 가구는 고령화로 인한 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인 가구 또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8]이 보여주는 추가적 사실은 적어도 60대 초반까지는 고령화로 인한 소득하락이 주로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즉 남성가구의 경우 고령이 되면서 다른 연령층과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절대적 소득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KLI**

<참고문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3월.
 _____ (2014.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